

# 성경 예언 해설집 <32회>

## 사도 요한

- 지난호에 이어서 -

### 영모靈母와 영자靈子(계12장)

모세와 이사가야 예언한 여인과 그의 후손은 2천년 전 예수가 아니요, 예수의 제자인 요한은 끝날에 나타나 뜻을 이룬다고 기록하였다. 예수교가 12장에 나오는 여인과 그의 아들의 정체를 여러 각도로 해석하여 궁색한 억설로 해석하고 있다. 마리아와 예수로 해석하자니 예수가 육신으로 두 번 세상에 출생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로, 유대교에 관한 기사 등으로 성경학자들이 횡설수설하고 있다. 예수가 여인의 후손이 아닌 것은 12장이 심판하고 있으니 12장은 예수교가 정교(正敎)가 아니요, 사교(邪敎)라는 것을 증명한다.

본문에서 해와 달과 열두 별을 몸에 지니고 있는 여자는 땅에 속한 죄인이 아니요, 의인 이긴자를 출산하는 산모로 그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는 장면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한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 과정을 여자가 해산할 때 울부짖는 고통으로 표현하였다.

BC 1천1백여 년 전 사사 시대 단지와 자손으로 하여금 고국을 떠나게 하사 동방 한반도로 인도하여 3천 년간 이 민족을 연단시킨 후 단의 후손에서 이긴자를 키우실 때 길 예비자, 후견자를 먼저 세웠으니 1955년 등장한 박태선 장로가 바로 그다. 그가 등단한 후 제일성(第一聲)으로 “나는 동방 의인 갈라나무로 주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라고 증거하였다.

초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는 고로 인봉하였으니 신자들까지 예수 재림의 길 예비자로 알고 있었으나 이긴자를 해산한 영모로서 길 예비자요 영적 아들이 뜻을 이룬다고 증거하였다. 영모인 여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해, 달, 별들로 옷을 입었다고 하였다.

12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지면 관계로 요약하였다. 여인이 해산하려고 고통스러워할 때 붉은 용 마귀가 여자 앞에 대고있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 하는 것은, 아이를 죽이지 못하면 마귀 자신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에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고 한 것은 모두가 영적 말씀이니 아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표현을 승천하였다고 하였다.

이긴자로 예정된 아들을 잡아먹지 못한 마귀는 아들을 낳은 여인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였으니, 본문에서 여자의 피난처는 광야라고 하였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고로 사망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사야는 흰 돌 소사(素砂)를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였으니 사막 광야에 구원하는 거룩한 길이 있다고 하였다.

아들을 낳은 영모는 마귀를 이긴 이긴자가 되지 못한 고로 피난처인 광야(소사) 승리제단으로 와서 이긴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피난처에 오지 못한 것이 불행이 되었다.

### 두 짐승, 정권政權과 교권敎權(계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길에 죽을 자는 마땅히 길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는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성경 본문에서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 자행할 수 없는 악행을 하므로 육식동물인 맹수로 표현하였다.

다니엘서에서 지적인 넷째 짐승은 심히 두렵게 생기고 쇠야빨을 가진 자로 먹고 부수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죽이는 잔인

한 자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니엘이 말한 미운 물건, 짐승 시대가 당도하였다고 예수가 말하였으나(마 24장) 예수 당사가 말세가 아닌 고로 예수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는 자니라

위에서 언급하였거니와 계시록의 역사는 승리가 감람나무가 오신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긴자와 대항하여 싸우는 짐승도 한국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귀가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 속에 들어가 한반도를 삼키려고 지금까지 악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본문에서 짐승의 모양이 사자와 표범과 곰 같으며 하나님을 훼방하고 부인하며 일곱 머리 열 뿔이 있고 참람된 이름이 머리에 있으며 자기를 자랑하여 이 세상에 누가 짐승과 같은 자가 있으며 싸울 자가 있느냐고 무척 장수라고 호언한다 하였다.

짐승이 세상 권세를 잡으니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면서 짐승을 찬양한다고 하였다. 이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하였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다.

짐승에 관하여 지금까지 해석이 각양 각색이다. 첫째,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짐승의 본거지로 교황을 짐승으로 해석하는 교파(예수 재림교회)가 있으며, 1983년에 유럽연합(EU)을 발족하자 영종하게도 유럽연합(EC)이 짐승의 역할을 하면서 짐승의 표를 세상 사람에게 받게 한다고 허황된 논리를 펴는 곳도 있다.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새끼 양 같은데 두 뿔이 있어 귀여운 모습이다.

이 짐승은 먼저 나온 무서운 짐승을 찬양 하면서 양 같은 이 짐승이 권세 잡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하였다. 양 같은 짐승은 종교이니 예수의 탈을 쓴 거짓 종교다. 맹수는 정권이요 양은 교권이니 정교(政敎) 합작으로 짐승 독재자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마 7:15)를 가리킨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의미는 교권의 불법 세습과 인권 남용을 일삼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권 목자의 작태를 뜻한다. 그러기에 용(인금)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사권 목사)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노랗질하는 이리>로 묘사한 것이다.

본문에서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이니 그 수는 6뿔6십6(666)이라고 표시하는데 666에 깊은 비밀이 있다고 괴상한 해석들을 하고 있으나 숫자에 큰 뜻은 없고 6수는 마귀의 수로 알려진 것이다. 보충 설명하면, 원래 삼위일체를 뜻하는 태초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3수와 아담 하나님을 상징하는 3수를 나열하면 333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마귀한테 포로로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333이 마귀의 숫자 666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 6천년 만에 아담과 해와를 도로 찾아 6수를 회복하셨기에 이제는 마귀 숫자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58>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58>

### 감춰진 불경(大藏經) -5

#### 미륵내시경(彌勒來時經)에 樹 字에 숨겨진 비밀

#### 【예】정본수능엄경(正本首楞嚴經) 4권 상근획익(上根獲益)

復次阿難 汝今知否 阿彌陀佛 在彼不遠 汝起合掌 面西頂禮  
부처아난 여금지부 아미타불 재피불원 여기합장 면서정례

다시 또 아난아,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아미타부처님께서 저기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너는 일어나 합장(合掌)하고 서쪽을 향해 정례(頂禮)하라.

【해】 이렇게 석존은 제자인 아난과 사리불을 통해 아미타부처님(阿彌陀佛) 서방(西方)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앞장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쪽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역(오행)을 의미하여 석존의 비밀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역(오행)에서 서쪽은 금운(金運)을 말하며 그래서 석존은 아미타불의 몸이 금빛(金色)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의 불교 의식을 주관하는 절집의 법당에 있는 불상에 금물을 입히는 촛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주역(오행)에서 금운을 가지고 불도를 이룬 이를 완성의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금운(金運)은 바로 목운(木運)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운이 영모(靈母)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이었다면 금운 조희성님은 바로 완성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오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行	天干	地支	5色	5方	5味	5香	易,數
木	甲乙	寅卯	靑	東	酸	春	3, 8
火	丙丁	巳午	赤	南	苦	夏	2, 7
土	戊己	辰戌 丑未	黃	中央	甘	長夏	5, 10
金	庚辛	申酉	白	西	辛	秋	4, 9
水	壬癸	子亥	黑	北	鹹	冬	1, 6

#### 【예】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來時經)

彌勒道樹下坐 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미륵도수하좌 용사월팔일명성출시득불도



미륵부처님이 도를 닦을때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 불도를 얻는다.

【해】 미륵부처님께서 불도를 닦을 때 나무 아래 앉는다는 뜻도 금운(金運) 조희성님도 같은 이치로 보아 나무 아래 앉았다는 한자에서 수(樹)와 목(木)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석존은 스승없이 깨달았다고 하여 독각(獨覺)이라고 부르며 미륵불은 스승님이 계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오행에서 나무(木)자의 의미를 보아 목운(木運)으로 70년대 한국에서 종교계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존은 3000년 뒤의 미래를 꿰뚫어 보신 것 또한 대단한 일이지요

이를 요약하여 미륵내시경의 원문을 올바르게 해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륵보살께서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에서 도를 닦는데 밝은 별의 이름을 가진 이가 성불하여 미륵부처님(하나님)된다.”

#### 【예】증일아함경 45권 불선품(不善品) 第4分

爾時,阿難白尊言 我此阿난백세존언 :

如來亦說過去恒沙諸佛取滅度者, 如來亦知,

여래역설과거항사제불취멸도자 여래역지

當來恒沙諸佛方當來者, 如來亦知如來何故不記爾許佛所造, 今但說七佛本末?

당래항사제불방당래자 여래역지여래하고불기이허불소조 금단설칠불본말

그때 아난이 세존께 여쭙었다.

여래(석존)께서는 과거 간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시고, 여래께서는 또한 간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모든 부처님이 장차 오실 것도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래께서는 어찌하여 그 많은 부처님들이 저를 비를 말씀치 않고, 지금 일곱 부처님들의 처음과 끝난 말씀하십니까?

佛告阿難 불고아난 :

皆有因緣本末故, 如來說七佛之本末過去恒沙諸佛亦說七佛本末,

개유인연본말고 여래설칠불지본말과거항사제불역설칠불본말

將來彌勒出現世時, 亦當記七佛之本末

장래미륵출현세시 역당기칠불지본말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모든 것에는 인연의 처음과 끝이 있으니, 여래(석존)가 일곱 부처님의 처음과 끝을 말했듯이, 과거의 간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일곱 부처님의 처음과 끝을 말했고, 장차 오실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도 또한 마땅히 일곱 부처님의 처음과 끝을 말씀하실 것이다.

【해】 이 의미는 신의 계보를 밝힌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밝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미륵부처님께서 성불(成佛)하시고 하나님이나 어떻게 우리 인간들 속에 유전되어 오셨는지를 밝히셨는데 그 말씀을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이어지면서 네 번째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의 하나님인데 단은 대한민국의 조(祖)이신 단군이십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목운(木運)으로 오신 박태선 영모(靈母)님, 여섯 번째는 해와 이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조희성 미륵부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神)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통하여 유전되어 오다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도 죄인으로 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죄인(罪人)의 탈을 벗기 위해 10대 때부터 십선도(十善道)를 스스로 회생과 봉사로 성불하셔서 드디어 완성이 되시는 그날까지 온갖 설움과 피눈물 나는 고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불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11권 선지식품(善知識品) 제20

彌勒菩薩 經三十劫 應當作佛 至眞等正覺 我以精進力 勇猛之心

미륵보살 경삼십겁 응당작불 지진등정각 아이정진력 용맹지심

미륵보살이 30겁이 지나면 반드시 참된 평등함의 바른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루는데 용맹스러운 마음으로써 정진한 힘 때문이다

【해】 하나님 미륵부처님 그리고 알라신은 민족과 국가 언어 종교적으로 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동일한 한분이시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에 미륵내시경에 나무 수(樹)자의 숨은 비밀한 뜻은 석가모니는 하늘에 감춰진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경에 글자로 때가 되어 주인공인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시면 이해가 되도록 안배를 해놓은 것을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彌